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 분석

조미림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An Analysis of Task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s of Occupational Therapists' Job in the Dementia Care Center

Mi-Lim Cho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 분석을 통해 핵심 작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1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는 6가지 책무 중 '상담(4.3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 및 관리(4.36)'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총 34개의 작업별 작업 중요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C-2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하기(4.50)'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4.47)'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상담' 책무 중 2개, '평가' 책무 중 8개, '중재계획' 책무 중 2개, '중재' 책무 중 6개, '교육 및 관리' 책무 중 2개, '자기개발' 책무 중 2개, 총 22개의 핵심작업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강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current study, we sought to investigate the key tasks involved in occupational therapists' jobs in dementia care centers by analyzing their educational needs and task importance. From January to February 2021,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13 occupational therapists at dementia care centers nationwide. The occupational therapists at the dementia care centers recognized that "Consultation (4.37)" was the most important of their six duties, and that education on "Education & Management (4.36)" was the most necessar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ance of a total of 34 tasks, it was recognized that the task of "C-2. Identifying client needs (4.50)" w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need for education on "E-10. Evaluating social skills (4.47)" was the highest. In addition, a total of 22 key tasks were derived, including 2 tasks relating to "Consultation" duty, 8 tasks relating to "Evaluation" duty, 2 tasks relating to "Plan of intervention" duty, 6 tasks relating to "Intervention" duty, 2 tasks relating to "Education & Management" duty, and 2 tasks relating to "Self-development" duty. This study could form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job-enhancing curriculum and programs that reflect the needs of occupational therapists at dementia care centers.

Keywords :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Dementia, Dementia Care Center, Job, Occupational Therapy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9R1G1A1009614)

*Corresponding Author : Mi-Lim Cho(Honam University)

email: ot2012@daum.net

Received July 13,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July 22,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47만명 수준이던 치매환자 숫자는 2016년에는 68.5만명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노출될 위험은 증가하였다[1]. 이에 문재인 정부는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까지 체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의 공적 전달체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었으며 2019년 말 기준, 256개소 설치되어 있다[1,2].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1대1 상담부터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는 상담과 조기검진 절차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2]. 이처럼 치매안심센터는 많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 부족, 특정 인력의 편중으로 인한 다학제적 팀 구성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편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3].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둔 작업치료사들은 정부지원기관,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설과 자원봉사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4]. 전국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역시, 작업치료사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사업에 참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5]. 작업치료사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평가, 중재계획, 중재, 교육 및 관리, 자기계발과 같은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5]. 이 중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 중재는 경증, 중증의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 간의 독립성, 의미 있는 활동,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두고 있다[6].

사회는 다양화 및 고도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이용대상자의 욕구도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7].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현재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치료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대상의 치매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가되면서 교육 명칭에 대한 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의 치매담당 작업치료사 대상 치매전문교육의 수행기관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선정하여 치매전문교육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9]. 해당 교육과정들이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작업치료사가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임상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구분석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실시되고,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일련의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접근법이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요구분석 과정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업과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인식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작업들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책무영역별 책무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 2)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작업별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 3)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핵심작업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 작업치료사들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Heinrich-Heine-University, Dü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11] 효과크기(effect size) 0.25(중간), α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1-\beta$) 0.8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인원은 101명으로 산출되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13명의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에게 구글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제공하였다. 온라인상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 도는 누락된 응답은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113부 모두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연구도구

요구분석에서 설문지법은 한 번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이다[10].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 분석 설문지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책무 내 작업별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는 이향숙(2013)이 제시한 작업치료사 직무분석(안)을 근거로 조미림(2020)이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 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5].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는 6개의 책무(duties)와 34개의 작업(task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Job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dementia care centers

Duty	Task
Consultation	C-1. Checking client information
	C-2. Identifying client needs
Evaluation	E-1. Establishing an evaluation plan
	E-2. Evaluating neuromusculoskeletal and motor-related functions
	E-3. Evaluating upper limb functions
	E-4. Evaluating the ability to move
	E-5. Evaluating sensory functions
	E-6. Evaluating mental functions
	E-7. Evaluating communication skills
	E-8. Evaluating daily activities for living
	E-9. Evaluating instrumental daily life activities
	E-10. Evaluating social skills
	E-11. Evaluating the area of performing

Plan of intervention	work
	E-12. Evaluating environmental factors
	P-1. Identifying problems
Intervention	P-2. Establishing treatment plan
	I-1. Improving neuromusculoskeletal and motor-related functions
	I-2. Improving upper limb functions
	I-3. Improving the ability to move
	I-4. Improving sensory functions
	I-5. Improving mental functions
	I-6.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I-7. Training daily living skills (self-management)
	I-8. Training instrumental daily living skills
	I-9. Improving social skills
	I-10. Providing brace appliance and prosthetic limbs
	I-11. Occupational therapy by home visiting
	I-12. Driving rehabilitation
Education & Management	I-13. Role rehabilitation
	EM-1. Education
Self development	EM-2. Management
	S-1. Conducting research activities
	S-2.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expertise
	S-3. Self-management

설문지 내용은 조미림(2020)이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도출한 책무와 책무영역별 작업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각 작업별 작업 중요도, 교육 요구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작업 중요도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요구도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작업치료 분야 연구 및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작업치료학과 교수에게 자문받았다.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중요하다/매우 필요하다)까지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책무 내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연구절차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개발, 연구대상자 모집, 치매

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 내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책무와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핵심작업 도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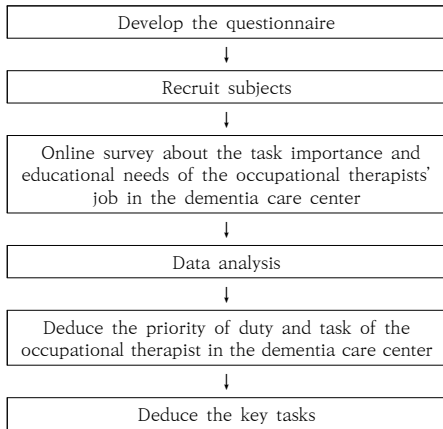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dure

2.5 연구내용 및 방법

첫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책무와 작업별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평균과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핵심작업을 도출하기 위해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정도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핵심작업에 대한 리커트 척도 점수는 4점(중요하다/필요하다)을 기준으로 하였다.

4개의 영역을 살펴보면, 5.0점 만점 중 작업 중요도가 4.0미만이고 교육 요구도가 4.0 이상인 경우는 I 영역,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 모두 4.0이상인 경우는 II 영역, 작업 중요도 4.0이상이고 교육 요구도 4.0미만일 경우는 III영역,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 모두 4.0미만일 경우는 IV영역에 포함된다. 핵심작업은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II영역에 해당된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책무 및 작업별 작업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핵심작업을 도출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한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2.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목적과 연구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온라인 설문지 첫 장에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을 읽고 연구목적과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응답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다.

3. 연구결과

3.1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는 여자가 89명(78.8%)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30~34세는 46명(40.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은 경상권이 44명(38.9%)으로 1순위, 수도권이 35명(31.0%)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학력수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3

Variable		N(%)
Gender	Male	24(21.2)
	Female	89(78.8)
Age	25~29	36(31.9)
	30~34	46(40.7)
	35~40	25(22.1)
	Over 41	6(5.3)
Region	Metropolitan area	35(31.0)
	Jungbu area	17(15.0)
	Gyungsang area	44(38.9)
	Honam/Jeu area	17(15.0)
Education	Below the bachelor's degree	30(26.5)
	Bachelor's degree	71(62.8)
	Master's degree	11(9.7)
	Doctoral degree	1(0.9)
Career (year)	<1	1(0.9)
	1~3	31(27.4)
	3~5	28(24.8)
	5~10	31(27.4)
	≥10	22(19.5)

준은 학사학위가 71명(62.8%)로 가장 많았고, 작업치료 임상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과 5년 이상 ~ 10년 미만 이 각각 31명(2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2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책무영역별 책무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6개의 책무에 대한 책무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Table 3과 같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는 책무 중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교육 및 관리', '중재계획', '평가', '자기계발', '중재'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재계획', '상담', '자기계발', '평가', '중재' 순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3. Priority by occupational therapist at dementia care center' duty area

Duty importance	Educational needs
Consultation(4.37)	Education & Management(4.36)
Education & Management(4.30)	Plan of intervention(4.26)
Plan of intervention(4.27)	Consultation(4.23)
Evaluation(4.15)	Self development(4.17)
Self development(4.14)	Evaluation(4.15)
Intervention(3.99)	Intervention(4.01)

3.3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작업별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인식하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작업별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Table 4와 같다. 총 34개의 작업별 작업 중요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C-2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하기'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 'E-8. 일상생활활동 평가하기', 'E-11. 작업수행영역 평가하기'가 순으로 작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작업별 교육 요구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E-6. 정신기능 평가하기', 'EM-2. 관리하기', 'C-2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하기' 순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4. Priority of task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s by task area of the participants

Task area(average)	
Task importance	Educational needs
C-2. Identifying client needs(4.50)	E-10. Evaluating social skills(4.47)
E-10. Evaluating social skills(4.48)	E-6. Evaluating mental functions(4.42)
E-8. Evaluating daily activities for living(4.39)	EM-2. Management(4.38)
E-11. Evaluating the area of performing work(4.38)	C-2. Identifying client needs(4.36)
EM-2. Management(4.35)	E-8. Evaluating daily activities for living(4.35), E-11. Evaluating the area of performing work(4.35)
E-6. Evaluating mental functions(4.34)	I-5. Improving mental functions(4.34), EM-1. Education(4.34)
P-1. Identifying problems(4.31), I-9. Improving social skills(4.31)	E-9. Evaluating instrumental daily life activities(4.32)
E-1. Establishing an evaluation plan(4.30), E-9. Evaluating instrumental daily life activities(4.30)	S-2.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expertise(4.31), I-9. Improving social skills(4.31)
S-2.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expertise(4.29), I-5. Improving mental functions(4.29)	I-6.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4.30)
I-11.Occupational therapy by home visiting(4.27), E-12. Evaluating environmental factors(4.27)	E-1. Establishing an evaluation plan(4.29), E-12. Evaluating environmental factors(4.29)
I-7. Training daily living skills (self-management)(4.26), EM-1. Education(4.26)	P-1. Identifying problems(4.27), I-7. Training daily living skills (self-management)(4.27), I-11.Occupational therapy by home visiting(4.27)
I-8. Training instrumental daily living skills(4.24), I-6.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4.24)	P-2. Establishing treatment plan(4.26)
C-1. Checking client information(4.23)	S-3. Self-management(4.24)
S-3. Self-management(4.22), P-2. Establishing treatment plan(4.22)	I-8. Training instrumental daily living skills(4.23)
E-7. Evaluating communication skills(4.20)	E-7. Evaluating communication skills(4.20)
E-4. Evaluating the ability to move(3.96)	C-1. Checking client information(4.11)
I-3. Improving the ability to move(3.93)	E-4. Evaluating the ability to move(3.95), I-13. Role rehabilitation(3.95), S-1. Conducting research activities(3.95)
I-13. Role rehabilitation(3.91)	I-3. Improving the ability to move(3.94)
S-1. Conducting research activities(3.89)	E-5. Evaluating sensory functions(3.77), I-2. Improving upper limb functions(3.77)
I-2. Improving upper limb functions(3.75)	I-1. Improving neuromusculoskeletal and
E-5. Evaluating sensory functions(3.74)	
I-1. Improving neuromusculoskeletal and	

Task area(average)	
Task importance	Educational needs
motor-related functions(3.72)	motor-related functions(3.75)
E-3. Evaluating upper limb functions(3.72)	E-3. Evaluating upper limb functions(3.74)
I-4. Improving sensory functions(3.68)	I-4. Improving sensory functions(3.73)
E-2. Evaluating neuromusculoskeletal and motor-related functions(3.66)	E-2. Evaluating neuromusculoskeletal and motor-related functions(3.66)
I-12. Driving rehabilitation(3.63)	I-12. Driving rehabilitation(3.65)
I-10. Providing brace appliance and prosthetic limbs(3.59)	I-10. Providing brace appliance and prosthetic limbs(3.63)

3.4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핵심작업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핵심작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핵심작업은 작업 중요도 4.0이상 과 교육 요구도 4.0이상인 모두 점수가 높은 II영역에 속 하며, 총 22개의 작업이 해당되었다. 상담 책무의 경우, 'C-1. 클라이언트 정보 확인하기', 'C-2. 클라이언트 욕 구 파악하기', 2개 모두 핵심작업으로 도출되었다. 평가 책무의 경우, 'E-1. 평가계획 수립하기', 'E-6. 정신기능 평가하기', 'E-7. 의사소통 평가하기', 'E-8. 일상생활활동 평가하기', 'E-9.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평가하기',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 'E-11. 작업수행능력 평가하기', 'E-12. 환경요소 평가하기', 총 8개의 작업이 핵심작업으 로 도출되었다.

중재계획 책무의 경우, 'P-1. 문제 확인하기', 'P-2. 치 료계획 수립하기' 모두 핵심작업으로 도출되었다. 중재 책무의 경우, 'I-5. 정신기능 증진시키기', 'I-6. 의사소통 기술 증진시키기', 'I-7. 일상생활활동 기술(지기관리) 훈 련하기' 'I-8.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기술 훈련하기', 'I-9. 사회기술 증진시키기' 'I-11. 방문 작업치료', 총 6개의 작업이 핵심작업으로 도출되었다.

교육 및 관리 책무의 경우, 'EM-1. 교육하기', 'EM-2. 관리하기' 모두 핵심작업으로 도출되었다. 자기계발 책무 에서는 'S-2. 전문성 향상시키기', 'S-3. 자기관리하기'가 핵심작업으로 도출되었다.

Table 5. Key tasks derivation

Area I TI: Below 4.0/5.0 EN: 4.0 or more/5.0		Area II TI: 4.0 or more/5.0 EN: 4.0 or more/5.0	
	C	C-1. Checking client information	C-2. Identifying client needs
	E	E-1. Establishing an evaluation plan	

		E-6. Evaluating mental functions E-7. Evaluating communication skills E-8. Evaluating daily activities for living E-9. Evaluating instrumental daily life activities E-10. Evaluating social skills E-11. Evaluating the area of performing work E-12. Evaluating environmental factors
	P	P-1. Identifying problems P-2. Establishing treatment plan
	I	I-5. Improving mental functions I-6.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I-7. Training daily living skills (self-management) I-8. Training instrumental daily living skills I-9. Improving social skills I-11.Occupational therapy by home visiting
	EM	EM-1. Education EM-2. Management
	S	S-2.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expertise S-3. Self-management
Area III TI: 4.0 or more/5.0 EN: Below 4.0/5.0	Area IV TI: Below 4.0/5.0 EN: Below 4.0/5.0	
	E	E-2. Evaluating neuromusculoskeletal and motor-related functions E-3. Evaluating upper limb functions E-4. Evaluating the ability to move E-5. Evaluating sensory functions
	I	I-1. Improving neuromusculoskeletal and motor-related functions I-2. Improving upper limb functions I-3. Improving the ability to move I-4. Improving sensory functions I-10. Providing brace appliance and prosthetic limbs I-12. Driving rehabilitation I-13. Role rehabilitation
	S	S-1. Conducting research activities

TI: Task importance, EN: Educational needs
C: Consultation, E: Evaluation, P: Plan of intervention, I: Intervention, EM: Education & Management, S: Self development

4. 고찰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의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지각하는 핵심작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6가지 책무(상담, 평가, 중재계획, 중재, 교육 및 관리, 자기계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담', '교육 및 관리'에 대한 작업 중요도가 1, 2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육 요구도의 경우 '교육 및 관리', '중재계획'이 1, 2순위를 차지하였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5,12].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까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이 '상담'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5].

'교육 및 관리' 책무의 경우,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의 순위가 모두 높았는데, 실제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대상의 치매 관련 교육과 예산, 도구, 안전관리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조미립(2020)의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은 '교육 및 관리'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5]. '교육 및 관리' 책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가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점을 고려한다면,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해당 책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육 및 관리' 책무 수행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총 34개의 작업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작업 중요도의 경우, 'C-2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하기'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방식은 건강관리 전문가가 치매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이해하고 지원해줄 수 있게 한다[13]. 치매 환자의 행동증상 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활동 수준과 동기를 향상시킨다[14]. 또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해당 작업은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2].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의 경우, 작업 중요도 점수

가 2순위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교육 요구도의 경우 1순위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은 이용대상자의 프로그램 전, 후 그리고 가정방문이나 사례관리 수행 시 대상자의 대인관계, 적응 행동 등 사회참여기술을 평가한다[5]. 대부분의 노인은 생활기술과 대지능력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성인 초기에 비해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해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갖는다[15]. 그리고 주변과의 대인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한다[16]. 작업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 기능 손상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중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이러한 사회기술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심리·사회·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12,16].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주이용자인 노인들의 사회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작업치료사들이 노인들의 현재 대인관계와 적응행동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E-8. 일상생활활동 평가하기', 'E-11. 작업수행능력 평가하기' 순으로 작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가 필수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의 경우 작업치료사들은 대상자의 작업수행 및 일상생활 기능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과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 대상의 정확한 일상생활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사례관리 등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3]. 작업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인지적 변화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능숙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작업치료사가 일상생활활동 및 작업수행 평가의 전문가임을 보여준다[12].

작업별 교육 요구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에 이어서 'E-6. 정신기능 평가하기', 'EM-2. 관리하기'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6. 정신기능 평가하기'의 경우 대상자의 의식 수준 평가, 프로그램 참여 전·후, 가정방문 또는 사례관리 시 기본인지기능 및 고위인지기능 평가, 대상자의 기질 및 성격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E-2. 관리하기'의 경우 문서작성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서류관리, 사업별 예산관리, 프로그램 사용 물품 관리, 낙상, 소화기 위치 안내 안전관리, 팀 협력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5]. 지역사회 작업치료는 보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치매안

심센터 작업치료사가 선택한 교육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들은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총 22개의 핵심작업이 도출되었다.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지만, 핵심작업에서 제외된 항목은 신경근육골격 및 운동관련 기능 평가 및 증재 항목, 상지기능 평가 및 증재 항목, 움직임능력 평가 및 증재 항목, 감각기능 평가 및 증재 항목, 운전재활, 연구 활동하기 등이 있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2021)에 의하면, 대다수의 작업치료사가 병원 및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으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치료와 마비된 몸의 회복이라는 환자 및 보호자의 재활욕구에 마주하며 관절운동 등 교정적 치료접근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17,18]. 이에 반해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지니며, 주로 작업요소적인 측면보다는 활동 및 참여와 관련된 상위하달식 접근방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5].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시점이 길지 않아,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과 직무를 다룬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으로 선행연구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특성을 반영한 필요 업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 분석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강화 교육과정과 대책들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 치매 관련 업무를 연속적,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19].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 간 치매관리에 대한 격차와 의료와 복지서비스 간의 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작업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 분석을 통해 핵심 작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는 6가지 책무 중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총 34개의 작업별 작업 중요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C-2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하기’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E-10. 사회기술 평가하기’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상담’ 책무 중 2개, ‘평가’ 책무 중 8개, ‘증재계획’ 책무 중 2개, ‘증재’ 책무 중 6개, ‘교육 및 관리’ 책무 중 2개, ‘자기계발’ 책무 중 2개, 총 22개의 핵심작업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이 인식하는 직무 내 작업별 작업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와 핵심작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문인력 직무능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Improvement of Dementia Care Center for the provision of consumer-oriented health services". Local Government Policy Briefs Need to Know, Korea, pp.1-3. 2019.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siness guide for dementia for the 2021, pp.39-138. 2021.
- [3] J. H. Le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how will it be realized?, *Policy Trend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Vol.11, No.4, pp.7-15. 2017.
- [4] Moira B.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self-determination: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as volunteer in two mountain communitie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Vol.61, NO.1, pp.6-12, 2014.
DOI: <https://doi.org/10.1111/1440-1630.12104>
- [5] M. L. Cho. Focus Group Interview on the Job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at Dementia Care Center. Vol.12, NO.1, pp.101-122, 2020.
DOI: <http://doi.org/10.34264/ikafa.2020.12.2.101>
- [6] Holly W, Ildiko T, Jane B, Hilary G, Tom S, Jennifer W, Aimee S, Martin O, Gail M, and Susan M. Measuring fidelity of delivery of the Community Occupational Therapy in Dementia-UK intervention. *BMC Geriatrics*, Vol.19, No.1 pp.364,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877-019-1385-7>
- [7] Y. W. Suh., & D. Y. Choi. Reinforc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Specialization Need Analysis for Curriculum Development: Focused on Activity Theo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 cooperation Society, Vol.21, NO.4, pp.428-436,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4.428>
- [8]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1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Dementia Specialized Education Dementia Care Center Occupational Therapist Course] Information on the same education and subjects of education in the past, Available From:
<http://www.kaot.org/board/read.jsp?id=11657> (accessed Jul. 7, 2021)
-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selection of dementia education instituti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ment No.2021-81.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63671 (accessed Jul. 7, 2021)
- [10] H. M. Choi. A Needs-based Analysis of Job Competency for Retired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Seoul, Korea. 2020.
- [11]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12] Natasha Y, Vivien H. A systematic review of cognitive stimulation therapy for older adults with mild to moderate dementia: an occupational therapy perspective.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VOL.18, No.4, pp.163-86, 2011.
DOI: <https://doi.org/10.1002/oti.315>
- [13] S. K. Kim., & M. H. Park. Effectiveness of person-centered care on people with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Vol.12, pp.381-397.
DOI: <https://doi.org/10.2147/CIA.S117637>
- [14] Y. A. Yang., H. S. Choi., B. H. Choung, S. G., Chae., ... H. J. Lee.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Seoul, Korea: Edufactory.
- [15] Y. J. Lee. *Satisfaction with life and mental health due to the participation of senior citizens in sports-for-all shooting campaign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Seoul, Korea. 2003.
- [16] K. A. Beum. *The Effects of the Social Skill Train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Aged Wome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Seoul, Korea. 2010.
- [17] N. K. Hwang., & M. Y. Jung.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Burnout Experience of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s.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9, No.4, pp.55-67.
DOI: <https://doi.org/10.22683/tsnr.2020.9.4.055>
- [18]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ists, Available From:
<https://www.kaot.org/pds/stat.jsp> (accessed Jul. 7, 2021)
- [19] C. U. Je., H. J. Kim, & I. H. Park. State Responsibility for Dementia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Bio-Medical and Law*, Vol.21, pp.81-107, 2019.
DOI: <http://doi.org/10.22397/bml.2018.20.05>

조 미 림(Mi-Lim Cho)

[정회원]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 학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석사)
- 2016년 8월 : 인제대학교 재활과 학과 작업치료전공 (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작업치료, 재활, 치매